

# 宣祖大王 御筆 <古詩> 屏風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Fold Screen with Gosi Written by King Seonjo

朴文烈(Moon-Year Park)\*

## < 목 차 >

- |                   |                 |
|-------------------|-----------------|
| I. 緒言             | 1. 形態事項         |
| II. 法住寺 所藏의 諸 屏風  | 2. <古詩>의 內容과 象徵 |
| III. 宣祖의 御筆       | V. 結 論          |
| IV. 宣祖 御筆 <古詩> 屏風 | <參考文獻>          |

## 초 록

본고는 속리산 法住寺 소장의 宣祖 御筆 <古詩> 병풍에 관한 고찰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조 어필 <古詩> 8幅 1屏은 書·畫에 능했던 선조의 어필을 영조 원(1725)년에서 영조 34(1758)년 이전의 시기에 反體陽刻으로 模刻하여 絹紙에 인출하여 제작한 것이다. 병풍의 크기는 190.0 × 67.0 cm이며 병풍의 서두에는 '宣祖大王御筆'이라는 篆體가 있다. <고시>의 字數는 80자이며 서체는 大字 連綿 草書體이다.

선조 어필 <고시> 병풍에 수록된 4수의 <고시>들은 志操와 德을 겸비한 君子의 출현을 갈망하는 선조의 간절한 마음이 起·承·轉·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어 : 선조, 고시, 병풍, 법주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 physical and 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fold screen with Gosi(고시), four ancient poems owned by Beopjusa temple(법주사) in Mt. Sokrisan(속리산).

The calligraphic specimen of this fold screen is written by King Seonjo(선조), and it seems to be made by between 1725 and 1758.

On the view of physical point, the size of the fold screen is 190.0cm high, and 67.0cm wide each fold. And its format is made by 8 fold screen and its calligraphic style is a 'cursive' style. It was printed by wood block printing with chinese ink on the Geonji(견지).

On the view of textual point, the fold screen of Gosi(고시) is consist of four ancient poems, and its content is describe to yearning for the appearance of the true gentleman possessed with high principles and virtue. And the four ancient poems is arranged by a well organized passage.

Key Words : the fold screen of Gosi, Beopjusa temple, King Seonjo.

\* 清州大學校 人文大學 人文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parkmoon@cju.ac.kr)

· 접수일 : 2004. 4. 30 · 최초심사일 : 2004. 5. 30 · 최종심사일 : 2004. 6. 14

## I. 緒 言

忠淸北道 報恩郡 內俗離面 舍乃里 209번지의 속리산 法住寺에는 朝鮮 宣祖大王의 御筆을 反體陽刻으로 模刻하여 印出한 것으로 추정되는 <古詩> 8幅 1屏이 소장되어 있다.

宣祖大王 御筆 <古詩> 屏風은 비록 模刻으로 印出된 것이기는 하나 조선시대 중기의 우리나라 木版印刷文化和 書藝史의 研究에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되어 충청북도 地方有形文化財 지정의 절차<sup>1)</sup>가 진행 중에 있다.

本稿는 속리산 法住寺에 소장된 <古詩> 병풍을 중심으로 병풍의 형태와 전래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고구함으로써 충청북도 지방유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法住寺 소장 문화재 관람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 II. 法住寺 所藏의 諸 屏風

현재 속리산 法住寺에는 宣祖 御筆 模刻의 <古詩> 8幅 1屏과 英祖 御筆로 추정되는 <無逸篇><sup>2)</sup> 10폭 1병 및 <新法天文圖><sup>3)</sup> 8폭 1병이 소장되어 있다.

宣祖 어필 模刻의 <古詩> 병풍은 英祖 34(1758)년에 왕이 英祖 御筆로 추정되는 <無逸篇> 병풍과 <新法天文圖> 병풍을 法住寺에 하사할 때 함께 하사되어 전래된 것<sup>4)</sup>으로 전해지나, 각종 記錄類와 『朝鮮王朝實錄』의 각종 기록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다.

1) 본 병풍은 2003년 11월 6일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현지조사와 2003년 11월 12일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의 지정예고 심의를 거쳐 2004년 6월 23일에 지정예고를 완료하였다.

2) 拙稿, “英祖大王 御筆 <無逸篇> 屏風に 관한 研究,” 淸大學術論集, 第3輯(2004, 6月 30日 發刊豫定) 參看.

3) <新法天文圖> 병풍은 현재 보물 848호로 지정되어 있다. <新法天文圖>는 1723년 쇄골러(I. Koegler)가 작성한 300좌 3038성의 천문도로 북반구에서는 볼 수 없는 남쪽 하늘을 포함한 천문도이다. 1742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觀象監 관원 安國賓 등이 쇄골러에게 직접 배워서 그려온 성도로 만든 8폭 병풍이다. 제1폭에는 新法天文圖說의 표제가 있고 제2·3·4폭에는 직경 165cm의 큰 원이 삼중으로 그려져 있고 360등분의 눈금 띠가 매겨져 있다. 제5·6·7폭에는 위의 3폭과 같은 양식으로 황도의 남극을 중심으로 남천의 별들이 수록되어 있고 제8폭에는 천문도의 제작에 참여한 관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제작연대는 英祖 18(1742)년이며 英祖 34(1758)년에 왕이 직접 法住寺에 하사한 것이라고 한다.

<[http:// www.nsm.go.kr/center/ssm/exhibition/exhi\\_science/h16.htm](http://www.nsm.go.kr/center/ssm/exhibition/exhi_science/h16.htm)>

4) 忠淸北道 文化公報擔當官室 編, 寺誌(淸州: 忠淸北道, 1982), pp.236-237.

다만, 조선 哲宗 2(1851)년 무렵에 禮曹에서 속리산 법주사에 내린 完文<sup>5)</sup>에 의하면,

禮曹에서 完文을 마련하여 발급하는 일 : 忠淸道 報恩 俗離山 大法住寺는 곧 三韓의 古刹로서 世祖 大王의 御駕가 駐蹕<sup>6)</sup>한 곳이며, 元宗大王의 願堂<sup>7)</sup>이며, 純宗大王의 胎室<sup>8)</sup>을 守護하는 곳이며 列聖朝<sup>9)</sup>의 御筆을 奉安하는 곳이며 宣禧宮<sup>10)</sup>의 願堂의 장소라 그 관계가 매우 所重하므로 평범한 곳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英廟朝 癸未(1763, 英祖 39)년에 宣禧宮에서 本寺의 義僧 等の 賦役 및 모든 大小에 간섭되는 雜役을 모두 蠲除<sup>11)</sup>할 것을 手本<sup>12)</sup>하였으므로 判下<sup>13)</sup>를 받들어 本 禮曹에서 完文을 마련하여 발급하니 ... 14)

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속리산 法住寺에는 일찍부터 조선시대 列聖朝의 御筆이 奉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新法天文圖> 병풍과 관련하여 ‘天文’ 혹은 ‘天文圖’에 관해서 기술된 『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1> 朝鮮時代 天文·天文圖 關聯記事

年代	朝 代	月 日	內 容	備 考
1445	世宗 27	03 癸卯	儀象·晷漏·天文·曆法の 책을 연구하다	15)
1499	燕山 05	07 己卯	成倪에게 天文을 살피서 아뢰도록 하다	16)
1571	宣祖 04	10 戊申	觀象監에서 天文圖 120軸을 진상하다	17)

- 5) 증명·허가·명령 등의 처분에 관하여 관아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 6) 임금이 거둥하는 중간에 御駕를 세워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7) 죽은 사람의 畫像이나 位牌를 모시고 그 願主의 명복을 비는 法堂으로 願刹이라고도 한다.
- 8) 宮家의 胎를 묻은 石室을 의미하는 것이다.
- 9) 代代的 임금의 시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 10) 조선시대에 統祥宮·景祐宮 등과 함께 각궁에 奉安된 妃嬪의 제사에 드는 경비의 조달을 맡았던 宮의 하나였다.
- 11) 租稅를 덜어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12) 下官이 직속의 上官에게 自筆로 쓴 報告書를 의미하는 것이다.
- 13) 上奏한 사건에 대한 임금의 裁可事項을 의미하는 것으로 判付라고도 한다.
- 14) 禮曹 編, 禮曹完文. 筆寫本. 咸豐 元(1851, 哲宗 2)年 三月日. 法住寺 所藏. 禮曹爲完文成給事 忠淸道報恩 俗離山大法住寺 卽三韓古刹 而世祖大王駐蹕之所 元宗大王願堂 純宗大王胎室守護 列聖朝御筆奉安 宣禧宮願堂之所 關係所重 非比尋常 而英廟朝癸未(1763, 英祖 39)年 因宣禧宮手本 本寺義僧等役 及凡干大小雜役 一並蠲除事 奉承判下 自本曹成給完文...
- 1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 探求堂, 1986) 世宗 27年 3月 癸卯條. 又命臣 搜索其天文·曆法·儀象·晷漏書之雜出於 傳記者 刪其重複 聚其切要 分門類聚 作爲一帙.
- 1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5年 7月 己卯條. ... 成倪博古多識 而精解天文 又兼天文提調 請令倪率天文學官員 旁攷文史 參象乾文以啓.
- 1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4年 10月 戊申條. 觀象監 天文圖一百二十軸進上.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5권 제 2호)

1571	宣祖 04	11 辛酉	朴應男·盧守愼·柳希春 등에게 天文圖를 하사하다	18)
1629	仁祖 07	04 戊申	觀象監이 天文圖의 별을 추산하니 前日과 차이가 있다고 하다	19)
1630	仁祖 08	04 丁巳	觀象監이 天文圖 星座의 度數가 맞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내년 辛未(1631)년부터 다시 추산해 관측하도록 아뢰다	20)
1742	英祖 18	11 乙亥	觀象監에서 天文圖·五層輪圖를 본떠 만들기를 청하다	21)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에서 검색된 이들 ‘天文’ 혹은 ‘天文圖’에 관련 기사들도 일반적인 ‘天文’과 ‘天文圖’와 관련된 기사일 뿐, 범주사에 소장된 <新法天文圖>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Ⅲ. 宣祖의 御筆

朝鮮 第14대 王인 宣祖는 書·畵를 잘하고 畵는 蘭과 竹을 잘했다고 한다.

宣祖의 御筆에 관해서 기술된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검색되고 있다.

<表 2> 宣祖 御筆 關聯記事

年代	朝 代	月 日	內 容	備 考
1647	仁祖 25	12 辛未	鄭光後가 宣祖의 御筆과 御畵 각 1폭씩을 진헌하다	22)
1648	仁祖 26	+3 壬辰	李勳·許瑠 등이 先朝의 御筆·御畵를 진헌하다	23)
1648	仁祖 26	+3 壬辰	司憲府가 先朝御筆 進獻者의 官職除授를 금할 것을 건의하다	24)

- 1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4年 11月 辛酉條.  
天文圖受賜者三人 朴應男·盧守愼·柳希春.
- 1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7年 4月 戊申條.  
觀象監啓曰 所下天文圖 各更中星畢推算矣 但與前日天文圖星度 或有異同處 請自今月三十日小滿 爲始測候 至明年小滿爲期 以驗差否.
- 2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8年 4月 丁巳條.  
觀象監啓曰 各更中星 今已推算 而矣與天文圖星度 或有異同處 故請去年本監 請自四月三十日小滿爲始測候 至明年小滿爲期 以驗差否矣 … 俱不合用 宜令日官 自明年辛未爲始 更加推算測候.
- 2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18年 11月 乙亥條.  
觀象監啓言 節行時覓來天文圖及五層輪圖 俱繫天文地理之用 請模置造成.
- 2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25年 12月 辛未條.  
前參奉鄭光後 獻宣廟御筆·書畵各一幅 ….
- 2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26年 閏3月 壬辰條.  
… 近者鄭光後·李勳·許瑠輩 或進先王御筆 或進御詩 或進御畵 ….
- 2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26年 閏3月 壬辰條.

1652	孝宗 03	05 乙未	完南君 李厚源이 宣祖御筆 印本 2貼을 바치다	25)
1654	顯宗 05	03 戊辰	幼學 鄭瑞鳳이 宣廟의 御筆을 바치다	26)
1677	肅宗 23	02 己酉	李潢, 李穡, 李漳 등이 宣祖의 御筆을 바치다	27)
1725	英祖 01	10 壬申	列聖祖의 御筆刊本을 만든 李混 등에게 賞을 내리다	28)
1725	英祖 01	11 庚子	列聖御筆의 刊本이 完成되다	29)
1743	英祖 19	02 甲寅	御筆 印本을 5처의 史閣에, 그 石版을 春秋館의 史閣에 守藏하게 하다	30)
1750	英祖 26	11 壬戌	왕이 江華島에서 가져온 宣廟 御書의 蘭竹屏을 보고 그 中 御筆은 墨色이 새것 같아 기이하다고 하다	31)
1781	正祖 09	10 乙未	왕이 宣廟朝의 어필 6본과 宣廟의 御筆木板 등 725편을 奉謨堂에 봉안하게 하고 續錄을 編修하도록 하다	32)
1793	正祖 17	12 丙子	故 吏曹判書 宋言愼의 집에 寶藏된 宣祖의 御筆을 받들다	33)

이상의 「朝鮮王朝實錄」에서 나타나는 기사를 통해 본다면, 仁祖朝 이후부터 正祖朝까지 宣祖의 어필이 전래된 것은 많지 않았던 듯하다.

따라서 孝宗 3(1652)년 5월에 完南君 李厚源이 宣祖의 御筆印本 2貼을 헌상한 기사, 英祖 원(1725)년 11월에 李混 등이 列聖祖의 御筆을 간본으로 완성한 기사, 英祖 19(1743)년 2월에 御筆 印本을 5처의 史閣에 수장하게 하고 그 石版을 春秋館의 史閣에 수장하게 한 기사, 正祖 9(1781)년 10월에 宣廟朝의 어필 6본과 宣廟의 御筆木板 등 7백 25편의 列聖御筆과 목판

憲府啓曰 先朝御筆 實是今日之至寶 … 而輒以六品實職 輕施於不當施之處 …

- 2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孝宗 3年 5月 乙未條.  
完南君李厚源上筭 授進其外祖長溪府院君黃廷或家所藏 宣廟御筆模印二貼 …
- 2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顯宗 5年 3月 戊辰條.  
幼學鄭瑞鳳 進宣廟御筆 …
- 2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肅宗 23年 2月 己酉條.  
全安都正潢·審昌正穡·光善副正漳等疏 進宣廟御筆 …
- 2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元年 10月 壬申條.  
列聖御筆刊本成 句管堂上全城君李混等 賞賜有差.
- 2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元年 11月 庚子條.  
列聖御筆刊本成.
- 3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19年 2月 甲寅條.  
… 訓諭元本 特命賜臣 在臣雖榮 而御筆非私藏者 此甚不安矣 命印本 分藏於五處史閣 毋禁私印 俾廣布中外 畢刊後 石版藏於春秋館及史閣.
- 3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26年 11月 壬戌條.  
上 謂諸臣曰 宣廟御書蘭竹屏 纔自沁都持來 俄命知申書跋文 而予於此 以爲有三奇事 今此御筆 經過幾年 墨色如新 一可奇也 …
- 3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9年 10月 乙未條.  
教曰 今因先朝御製 御筆 碑本奉考事 … 宣廟朝御筆六本 … 宣廟御筆木板七百二十五片 謹各彙次 奉安於奉謨堂展拜 … 繼此續錄 在所當爲 …
- 3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17年 12月 丙子條.  
教曰 故吏曹判書宋言愼家寶藏宣廟御墨 奉來敬玩 不任起感之私 …

을 奉謨堂에 봉안하게 하고 續錄을 編修토록 한 기사<sup>34)</sup> 등은 후대 왕들의 宣祖 어필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노력의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英祖 26(1750)년 11월에 왕이 강화도에서 가져온 宣廟 御書의 蘭竹屏을 관상하면서 그 중 御筆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墨色이 새것 같아서 기이하다고 기술한 것은 英祖가 宣祖 어필의 진가를 감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奎章閣에는 목판본 宣祖 어필의 병풍<sup>35)</sup>이 소장되어 있다. 그 해제에 의하면 “朝鮮王朝 第14대王인 宣祖의 御筆로 16幅의 木板紙幅이다. 16幅을 連帖으로 製軸한 橫軸이며 8幅은 唐詩 五言絶句의 大字 草書, 4幅은 唐詩 七言絶句의 大字 草書, 竹·蘭이 各 2幅이다. 每幅에 篆字인 ‘宣廟御筆’의 표시가 있다. 五言詩는 <斗轉月未落>, <犬吠人家近>, <山中春日盡>, <山月眠如燭>, <偶來松樹下>, <雨後碧菖院>, <懷君屬秋夜>, <春眠不覺曉> 등의 순서로 되어 있고 七言詩는 <五柳先生本在山>, <行盡江南數十程>, <萬頃滄波欲暮天>, <無媒逕路草蕭蕭> 등의 순서로 되어 있어 모두 有名한 唐詩들이다. 宣祖는 書畫를 잘하고 畫는 蘭竹을 잘했다. 여기의 草書는 세로 85cm 가로 55cm의 壯紙에 인출한 大字 連綿草인데 더러 缺字가 있으나 流暢豪放한 達筆이다. 蘭竹도 잘 되었는데 난은 特異하여 阮堂 金正喜가 宣祖의 난을 평하기를 그 葉式花格이 中國에서도 별로 傳하지 않는 宋代의 所南 鄭思肖를 닮았다고 했는데 바로 所南蘭이다. 宣祖는 여러 사람에게 글씨를 下賜했으며 西山大師에게 墨竹과 題讚을 親筆하여 下賜한 일도 있다 한다. 五言詩, 七言詩 그리고 竹蘭이 각각 끝나는 幅에 ‘崇禎四年 辛未(1631)年八月日義昌君臣珖稽首摹刊’의 表示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宣祖 御筆의 木版은 1631(仁祖 9)年 8월에 宣祖의 第8男 仁嬪 金氏 소생인 義昌君<sup>36)</sup>이 摹刊한 것이며 御筆한 年月日은 알 수 없다”<sup>37)</sup>고 하였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歷朝의 御筆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逸失됨에 따라 후대의 왕들은 先代의 御筆이 오래도록 전래되게 하기 위하여 模刻의 방법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正祖 9年 10月 乙未條.

敎曰 今因先朝御製御筆碑本奉考事… 宣廟朝御筆六本… 宣廟御筆木板七百二十五片 謹各彙次 奉安于奉謨堂展拜… 繼此續錄 在所當爲…

35) 李珖 編, 宣祖御筆. 木板本. 16幅 連帖屏. 100.6×126.0cm. (奎11962)

36) 義昌君 : 조선 宣祖의 第8 庶子로 1589(선조 22)년에 출생하여 1645(인조 23)년에 卒去하였다. 이름은 珖, 자는 藏中, 호는 杞泉, 어머니는 仁嬪 金氏였다. 판서 許晟의 딸과 결혼, 1618(광해군 10)년 모반죄로 誅殺된 처족 許筠의 사건에 연좌되어 勳爵을 削奪 당하고 유배되었다가 1623년 仁祖反正으로 다시 풀려나와 종친으로 인조의 총애를 받았다. 글씨를 잘 썼다. 시호는 敬憲이다. <韓國人名大事典編纂室 編, 韓國人名大事典(서울 : 新丘文化社, 1995), p.585.>

37) [http://kyujanggak.snu.ac.kr/bha/hea\\_main.html](http://kyujanggak.snu.ac.kr/bha/hea_main.html)  
解題의 <宣祖御筆(奎 11962), 李珖(朝鮮) 編>條 參看.

## IV. 宣祖 御筆 <古詩> 屏風

朝鮮의 14대 국왕이었던 宣祖는 속리산 法住寺의 부속 암자인 中獅子菴을 즐겨 찾았으며, 암자 남쪽에 願堂을 짓고 곡식을 하사하였다<sup>38)</sup>고 한다.

본 宣祖 어필 <古詩> 병풍은 宣祖가 속리산 中獅子菴에 머물렀던 것을 인연으로 英祖 34(1758)년에 法住寺에 하사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39)</sup>

### 1. 形態事項

본 宣祖 御筆 <古詩> 屏風の 서지사항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宣祖大王御筆<古詩>屏風 / 宣祖(朝鮮) 御筆. - 木版本. - [刊寫地未詳] : [宣祖御筆 模刻], [1725~1758年頃].

8幅連帖1併 : 190.0 × 67.0 cm. 絹紙. 屏風裝. 草書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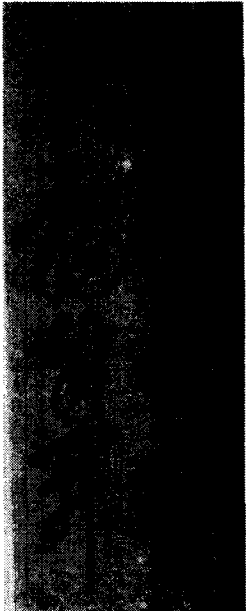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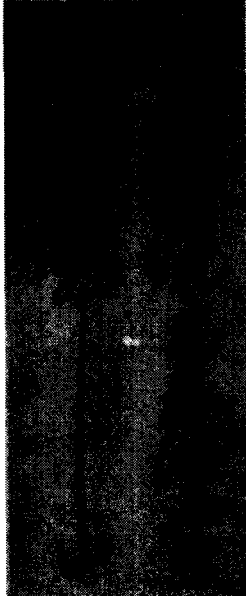
본 宣祖 御筆 <古詩> 屏風の 製作年代와 刊寫者는 병풍에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英祖 34(1758)년에 英祖가 英祖 御筆 <無逸篇> 병풍과 <新法天文圖> 병풍을 法住寺에 하사할 때 함께 하사되어 전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宣祖의 어필은 제1차로 1631(辛未, 인조 9, 崇禎 4)년 8월에 宣祖의 제8남 義昌君 李珣에 의해 模刻된 바 있었다.

38) 忠淸北道 文化公報擔當官室 編, 前掲書, p.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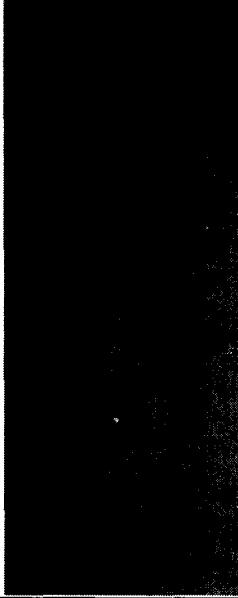
39) 忠淸北道 文化公報擔當官室 編, 上掲書, p.237.

<表 3> 古詩 屏風の 圖版과 原文 및 特徵(1)

第 1 幅	第 2 幅	原 文 · 特 徵
		<p>■ 原文  <input type="checkbox"/> 第1幅 / 宣祖大王御筆[篆體]                  墻角一枝梅凌 寒獨自開  <input type="checkbox"/> 第2幅                  遙知非是雪爲 有暗香來</p> <p>■ 特徵                  · 세로 : 190.0cm                  · 가로 : 67.0cm                  · 行數 : 每幅 2行                  · 字數 : 第1幅 10字                            第2幅 10字                  · 書體 : 草書體                  · 材質 : 絹紙                  · 裝訂 : 屏風裝                  · 版面 : 良好                  · 保存 : 良好                  · 現狀 : 比較的 良好</p>
第 3 幅	第 4 幅	原 文 · 特 徵
		<p>■ 原文  <input type="checkbox"/> 第3幅                  白髮三千丈 綠水似箇長不  <input type="checkbox"/> 第4幅                  知明鏡裏何處 得秋霜山</p> <p>■ 特徵                  · 세로 : 190.0cm                  · 가로 : 67.0cm                  · 行數 : 每幅 2行                  · 字數 : 第3幅 11字                            第4幅 10字                  · 書體 : 草書體                  · 材質 : 絹紙                  · 裝訂 : 屏風裝                  · 版面 : 良好                  · 保存 : 良好                  · 現狀 : 比較的 良好</p>



<表 3> 古詩 屏風의 圖版과 原文 및 特徵(2)

第 5 幅	第 6 幅	原 文 · 特 徵
		<p>■ 原文  <input type="checkbox"/> 第5幅                      中春已晚處處 見花稀明日  <input type="checkbox"/> 第6幅                      來無盡林間 宿不歸渭北</p> <p>■ 特徵                      · 세로 : 190.0cm                      · 가로 : 67.0cm                      · 行數 : 每幅 2行                      · 字數 : 第5幅 11字                                第6幅 10字                      · 書體 : 草書體                      · 材質 : 絹紙                      · 裝訂 : 屏風裝                      · 版面 : 良好                      · 保存 : 良好                      · 現狀 : 比較的 良好</p>
第 7 幅	第 8 幅	原 文 · 特 徵
		<p>■ 原文  <input type="checkbox"/> 第7幅                      春天樹江東 日暮雲何時  <input type="checkbox"/> 第8幅                      一尊酒重與細 論文</p> <p>■ 特徵                      · 세로 : 190.0cm                      · 가로 : 67.0cm                      · 行數 : 每幅 2行                      · 字數 : 第7幅 10字                                第8幅 8字                      · 書體 : 草書體                      · 材質 : 絹紙                      · 裝訂 : 屏風裝                      · 版面 : 良好                      · 保存 : 良好                      · 現狀 : 比較的 良好</p>

제2차로는 英祖 원(1725)년에 李混 등이 列聖朝의 御筆을 간행할 때 함께 간행되었던 것이

다. 이는 英祖 원(1725)년 10월에 어필을 간행하는 李混 등에 특별히 賞을 내렸는데<sup>40)</sup> 그것은 同年 11월에 列聖朝의 御筆이 刊本으로 完成<sup>41)</sup>되기 전에 독려의 차원에서 行賞하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宣祖 御筆 <古詩> 屏風과 함께 하사된 <新法天文圖> 병풍의 제작연대는 英祖 18(1742)년이며 영조가 이를 法住寺에 하사한 시기는 英祖 34(1758)년이다.<sup>42)</sup>

이상의 여러 사실로 짐작한다면 宣祖 御筆 <古詩> 屏風의 제작연대는 선조의 어필이 2차로 간행된 英祖 원(1725)년 무렵부터 그것이 법주사에 하사된 英祖 34(1758)년 이전의 시기인 듯하다.

본 宣祖 御筆 <古詩> 屏風의 제1폭 서두에는 ‘宣祖大王御筆’이라는 篆體가 있으며, 글씨는 大字 連綿草로 서사되어 있다. 간혹 훼손된 글자<sup>43)</sup>가 있기는 하나 宣祖의 流暢豪放한 達筆의 神韻이 잘 나타나고 있다.

## 2. <古詩>의 內容과 象徴

宣祖 어필 <古詩> 8幅 1屏에 수록된 古詩의 內容과 象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第1幅과 第2幅의 <古詩>

宣祖 어필 <古詩> 병풍의 제1폭과 제2폭에 있는 <古詩>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담장가로 뻗은 매화나무 가지여	(墻角—44)枝梅)
혹한을 이기고 홀로서 피었어라	(凌寒獨自開 <sup>45)</sup> )
멀리서도 눈송이 아님을 아나니	(遙知非 <sup>46)</sup> 是雪)

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元年 10月 壬申條.  
列聖御筆刊本成 句管堂上全城君混等 賞賜有差.

4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元年 11月 庚子條.  
列聖御筆刊本成.

42) 忠淸北道 文化公報擔當官室 編, 前掲書, pp.234-236.

43) 특히 제3폭 2행의 끝부분인 ‘綠水似箇長不’에서 ‘不’의 경우는 훼손이 심한 편이다.

44) ‘一’은 ‘數’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45) ‘開’는 ‘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46) ‘非’는 ‘不’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은은한 향기 풍겨오기 때문이라네! (爲有<sup>47</sup>)暗香來)

병풍의 제1폭과 제2폭에 있는 五言絶句의 이 <古詩>는 ‘君子’를 ‘梅花’로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매화는 덕이 있는 높은 사람과 같고, 봄소식의 전령사였던 것이다.

宣祖는 평시에 梅花를 좋아하였다. 그 일례로 宣祖 32(1599)년 3월에 備忘記로 “어제 黃應陽의 시 속에서 梅花를 그린다는 말을 보았는데, 평소에 그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말을 들었다. 일을 아는 역관을 시켜 그에게 ‘어제 大人을 모실 때 친필로 쓰신 좋은 시를 선사받았으니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梅花를 그린다는 말이 있었으니 大人께서 한가한 날에 매화·대나무·난초 등 각 10여 폭을 그려 나에게 주시면 반드시 소중히 간직하여 길이 보물로 삼을 것이며 나중에 펼쳐 볼 때 大人의 청아한 모습과 厚德을 대하듯이 하겠소이다!’고 통지하게 하라!”<sup>48</sup>며, 당시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差官으로 와있던 黃應陽의 梅花·대나무·난초 등의 그림을 선사받아 오도록 하였다.

또한 宣祖 20(1587)년 3월에는 宣祖는 御製한 詩를 玉堂에 내렸는데, <三色桃花詩>에서는

한 나뭇가지에 곱게 핀 복사꽃들	(夭桃一樹枝)
무슨 일로 두세 가지 빛깔이려나!	(何事兩三色)
식물들도 오히려 이와 같으려나니	(植物尙如此)
人心이 反覆하는 것도 마땅하리라!	(人心宜反覆)

라고<sup>49</sup> 하였으며, 또한 <碧桃花詩>에서는

흰 꽃이 눈처럼 희디희니	(白花白如雪)
梅花빛 어지러울까 두려우네!	(恐亂梅花色)
碧桃의 꽃이라 하면서도	(云是碧桃花)
어찌 이름이 실제와 다른가!	(如何名異實)

47) ‘有’는 ‘不’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4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32年 3月 丙午條.

備忘記曰 昨見黃應陽所製詩中 有寫梅之語 予素聞應陽善畫 令事知譯官通之曰 昨陪大人 惠以佳篇親筆 不勝感激 其中有寫梅之語 願大人 乘閑暇日 寫梅竹蘭各十餘幅惠我 當十襲珍藏 天以爲寶 他日披見 如對大人之清儀馨德也云云.

4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20年 3月 庚寅條.

上一日 以御製三色桃詩 下玉堂 詩曰 夭桃一樹枝 何事兩三色 植物尙如此 人心宜反覆.

라고<sup>50)</sup> 하여 당시 辭職을 청한 大司諫 李滌 등을 풍자하기도 하였다.

이 <古詩>는 宣祖가 평소 매화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를 알 수도 있겠으나, 높은 지식이나 지위에만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忍耐와 德을 겸비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君子精神’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전래되는 <古詩>에서 몇 글자를 宣祖 자신의 의도에 맞게 바꿈으로써 學識과 德行이 높은 君子의 出現을 갈망하는 宣祖의 마음을 적절히 표출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2) 第3幅과 第4幅의 <古詩>

宣祖 어필 <古詩> 병풍의 제3폭과 제4폭에 있는 <古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흰 머리카락 삼천장이나 되니	(白髮三千丈)
근심으로 이리도 긴 듯하여이	(綠水似箇長)
거울 속의 모습은 누구이런지	(不知明鏡裏)
어디서 가을서리 얻어왔네 그려!	(何處得秋霜)

병풍의 제3폭과 제4폭에 있는 五言絶句의 이 <古詩>는 ‘늙음’을 ‘백발’과 ‘가을서리’로 비유한 것이며 ‘과장된 비웃음’도 受容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이 五言絶句의 <古詩>는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李白의 <秋浦歌> 17수 중 한 수의 五言絶句이다. 만년에 귀양에서 풀려난 李白이 秋浦(安徽省 내)에 와서 거울을 보고 이미 늙어버린 자기 모습에 놀라서 지은 連作 중의 한 수이다. 수심으로 덧없이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는 ‘백발의 길이가 삼천 길’이란 표현은 문학의 과장적 표현으로 널리 인용되는 문구이기도 하나 ‘과장된 것을 비웃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또한 이는 단순한 과장이라기보다는 李白의 호탕한 성격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결과일 것이다.

이는 宣祖가 李白의 오언절구를 빌어 자신도 덧없이 늙어가고 있음을 상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 梅花와 같이 忍耐와 德을 겸비한 君子의 출현을 갈망하던 宣祖 자신이 君子의 출현을 기다리고 갈망하다 이제는 지치고 늙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5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20年 3月 庚寅條.

又有碧桃花詩曰 白花如白雪 恐亂梅花色 云是碧桃花 如何名異實.

(3) 第5幅과 第6幅의 <古詩>

宣祖 어필 <古詩> 병풍의 제5폭과 제6폭에 있는 <古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속의 봄기운은 이미 저물고	(山中春已晚)
곳곳엔 꽃들만 드물게 피었네	(處處見花稀)
내일은 오시고 다시 오시련만	(明日來無盡)
수풀사이 묵고선 오시지 않으이!	(林間宿不歸)

宣祖 어필 <古詩> 병풍의 제5폭과 제6폭에 있는 五言絶句의 이 <古詩>는 ‘늦음’을 ‘春晚’으로, ‘군자’를 ‘明日’로 비유하여 時勢를 한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속의 봄기운이 이미 저물듯이’는 宣祖 자신도 이미 늙었음을 상징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수풀 사이에서 묵고 돌아오지 않는’ 군자들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宣祖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돌아올 君子들을 조용히 기다리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4) 第7幅과 第8幅의 <古詩>

宣祖 어필 <古詩> 병풍의 제7폭과 제8폭에 있는 <古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위수 북쪽의 봄 나무아래 있는데	(渭北春天樹)
그대는 강동의 해 지는 구름아래 있네	(江東日暮雲)
언제쯤에라야 술항아리 옆에다 두고서	(何時一尊酒)
그대와 더불어 자세히 문장을 논하리오!	(重與細論文)

병풍의 제7폭과 제8폭에 있는 五言絶句의 이 <古詩>는 군자를 기다리다 지친 宣祖 자신의 마음을 달래며 언젠가는 돌아와 함께할 군자들과의 미래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이 <古詩>는 杜甫의 <春日憶李白> 중의 일부로 杜甫가 따뜻한 봄날을 맞아 李白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백의 시는 필적할 이 없으려나니	(白也詩無敵)
표연한 생각들이 무리들과 다르오네	(飄然思不群)

청신함에 있어선 유개부와 같으려니	(清新庾開府)
준일함에 있어선 포삼군과 같으려네!	(俊逸鮑參軍)
나는 위수 북쪽의 봄 나무아래 있는데	(渭北春天樹)
그대는 강동의 해 지는 구름아래 있네	(江東日暮雲)
언제쯤에라야 술항아리 옆에다 두고서	(何時一樽酒)
그대와 더불어 자세히 문장을 논하리오!	(重與細論文)

병풍의 제7쪽과 제8쪽에 있는 五言絶句의 이 <古詩>가 杜甫의 <春日憶李白>의 전문 중에서 후반부만 취하여 온 것은 杜甫가 李白을 그리워 사모하며 추억하는 처지와 마찬가지로 宣祖 자신이 君子를 그리워 사모하는 처지와 다를 바 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북쪽의 봄 나무 아래 있는’ 宣祖 자신과 ‘해지는 구름아래에 있는’ 군자들이 다시 함께 모이기만 한다면 太平聖代를 누릴 수 있음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宣祖 어필 <古詩> 병풍에 수록된 4수의 <古詩>들은 얼핏 보아 평범한 <古詩> 4수를 빌어 어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朝廷에 內憂外患이 적지 않았던 宣祖의 입장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志操와 德을 겸비한 君子의 出現을 기다리는 宣祖의 간절한 소망이 起承轉結의 형태로 잘 짜여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 V. 結 論

이상에서 속리산 法住寺 소장의 宣祖 어필 <古詩> 병풍에 관하여 考察한 바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 (1) 속리산 法住寺 소장의 宣祖 御筆 <古詩> 병풍은 反體陽刻으로 模刻·印出하여 제작된 8幅 1屏으로 屏風의 크기는 190.0 × 67.0 cm이다. 屏風의 서두에는 ‘宣祖大王御筆’이라는 篆體가 있고 어필 <古詩>의 字數 80자이며 書體는 大字 連綿 草書體로 宣祖의 流暢豪放한 達筆의 神韻이 잘 나타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중기의 木版印刷文化와 어필의 研究에 있어서 그 가치가 인정될만한 것이다.
- (2) 宣祖는 書·畫에 능하였으며, 본 宣祖 御筆 <古詩> 屏風은 英祖 원(1725)년 무렵부터 英祖 34(1758)년 이전의 시기에 模刻으로 絹紙에 印出하여 제작한 것이다. 그것은 宣祖의 御筆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逸失됨에 따라 후대에 이르러 宣祖의 御筆을 模刻하여 전래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던 데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3) 宣祖 어필 <古詩> 屏風에 수록된 4수의 <古詩>들은 志操와 德을 겸비한 君子의 出現을 갈망하는 宣祖의 간절한 마음이 起承轉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參 考 文 獻

- 宣祖 編, 宣祖大王 御筆 <古詩> 屏風. 木版本. [刊寫地未詳], [宣祖御筆 模刻], [1725~1758年 頃]. 8幅連帖1併. 法住寺 所藏.
- 英祖 編, 英祖大王 御筆 <無逸篇> 屏風. 金泥筆寫本. [刊寫地未詳], [英祖 御筆], [英祖 34(1758)以前頃]. 10幅連帖1併. 法住寺 所藏.
- 禮曹 編, 禮曹完文. 筆寫本. 咸豐 元(1851, 哲宗 2)年 三月日. 法住寺 所藏.
- 李珣 編, 宣祖御筆. 木板本. 16幅連帖屏. 100.6×126.0cm. (奎11962)
- 春秋館 編, 燕山君日記. 影印本. 서울 :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宣祖實錄. 影印本. 서울 :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仁祖實錄. 影印本. 서울 :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孝宗實錄. 影印本. 서울 :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顯宗實錄. 影印本. 서울 :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肅宗實錄. 影印本. 서울 :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英祖實錄. 影印本. 서울 : 探求堂, 1986.
- 春秋館 編, 正祖實錄. 影印本. 서울 : 探求堂, 1986.
- 忠淸北道 文化公報擔當官室 編, 寺誌. 淸州 : 忠淸北道, 1982.
- 괴글러(I. Koegler) 編, 安國賓 等寫, <新法天文圖> 屏風. [刊寫地未詳], [安國賓 等寫], [英祖 18(1742)]. 8幅連帖1併. 法住寺 所藏. 寶物 848號.